

마야아즈텍 문명의 전통과 현대 건축문화를 이어주는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AM) 건축·도시·조경연구센터(CIAUP)

문보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이하 UNAM)는 1551년에 설립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멕시코시티 남쪽에 위치한 주 캠퍼스는 대학도시(Ciudad Universitaria)라고 불리며 멕시코 전통문화와 현대의 건축·예술·공학이 어우러져 있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고대 마야·아즈텍 문명에서 내려온 건축과 예술 정신은 멕시코 거리 곳곳에서 발견된다. 또한 멕시코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이스 바라간(Luis Barragán)을 비롯하여 리카르도 레고레타(Ricardo Legorreta)와 페드로 라미레스 바스케스(Pedro Ramirez Vazquez) 등 멕시코를 대표하는 건축가들은 멕시코만의 멋과 색을 건축에 녹여 내며 세계적 위상을 얻었다.

이렇듯 건축의 나라인 멕시코가 고대 문명과 전통을 살리는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건축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는 UNAM 건축학부의 역할이 컸으며, 건축학부 내에 설립된 건축·도시·조경연구센터(Centro de Investigaciones en Arquitectura, Urbanismo y Paisaje: CIAUP)는 학문적 기능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CIAUP



UNAM
대학도시 캠퍼스의
중앙도서관

“CIAUP는
‘건축·도시·조경’이라는
세 가지 지식에 대하여
문화유산·국토·이론·
기술·디자인’이라는
다섯 가지 연구 분야를
통해 심층적으로 접근한다.”

건축과 도시의 틀 속에서 사회문제 바라보기

CIAUP는 UNAM 건축학부의 학문적 공간이자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지식을 공유 연구로 생산·전달·확장하기 위한 장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축·도시·조경’이라는 세 가지 지식에 대하여 ‘문화유산·국토·이론·기술·디자인’이라는 다섯 가지 연구 분야를 통해 심층적으로 접근한다.

또한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건축과 도시라는 큰 틀에서 다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다. 예컨대 다가오는 9월에 열리는 세미나는 ‘위험과 취약성: 실행, 관리, 정책’이라는 타이틀 아래 현 시점에서 멕시코 사회와 미국·중미를 포함한 멕시코 주변 국가들의 가장 큰 사회 이슈인 ‘이민’에 관해 다룬다. 멕시코는 중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멕시코 국민을 포함한 다른 중남미 국민들의 불법이민이 항상 사회의 큰 문제거리였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된 거대한 이민행렬(Caravan)이 급속화·장기화됨에 따라 멕시코라는 국가가 가진 공간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도시가 이민자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그로 인해 가중되는 불안정한 치안 문제 등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세미나의 소주제 또한 ‘시간 속 이민의 공간들’과 ‘빈곤과 사회적 차별 관련 공간적 주관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시·공간 안에서 이민·이주·문화적 이동의 과정을 분석하며 건축 형태가 빈곤과 사회적 차별의 여러 유형들을 어떻게 제거하거나 또는 강화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폭넓은 연구 분야

녹지와 공공공간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적 틀을 통합하는 구성요소를 정립하기 위해 공공녹지공간 간의 복잡한 현상에 대해 접근하는 다학제 간 연구로 공공녹지공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화·사회·환경적 연구를 진행한다. 녹지공간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차원적 접근인 측면이 강하였으며, 대개 양적 분석과 측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CIAUP는 시민들의 웰빙을 위한 공공녹지공간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개발하기 위해 어떻게 지속가능성에 접근할 것인지 광범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지공간 건설을 위해 다차원적 현상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비전을 구성하며 도시 조경사와 계획가·건축가가 양적·질적 변수를 갖춘 사회·문화·환경적 제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다.



CIAUP

“CIAUP는 시민들의
웰빙을 위한
공공녹지공간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지속가능성에 접근할
것인지 광범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CIA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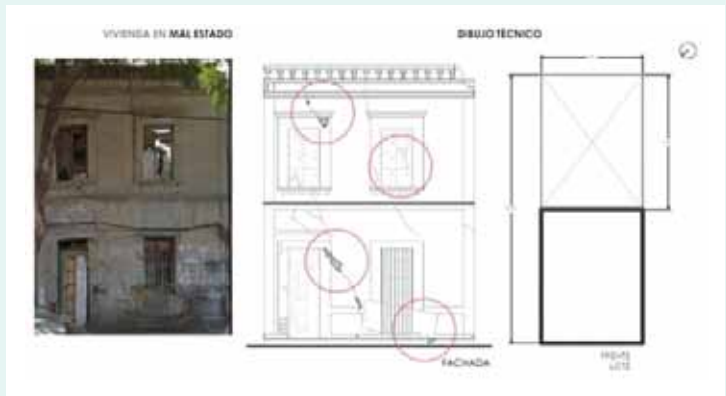
CIAUP에서 연구 중인 Tensile 공법을 활용한 다양한 건축 구조물 형태

구조물

구조적이고 건축적으로 가벼운 천장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지식들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하고 가벼운 천장의 개념·디자인·건설을 위해 Tensile 공법, 기력학, 그물 모양의 외막, 텐세그리티 시스템, 지오데식 돔, 공간적 구조물 등을 활용한다. 특히 CIAUP에서 새로이 명명한 Mecametria 공법(기계학과 기하학이 결합된 개념)을 적용한 연구가 활발하며, 2011년부터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잠재력이 높은 자연·인공적 재료를 적용한 연구로 특히 대나무가 활용되고 있다. 가벼운 천장 디자인 활용을 원하는 외부기관의 자문에 응하기도 한다.

도시와 주택의 정보, 모니터링, 모델링 체계

멕시코 도심 주택들의 기능적 시스템과 메타볼리즘, 모니터링, 모델링을 위한 분석을 연구한다. 지속가능한 물리적·환경적·사회적 구조물, 그리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와 주택을 위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구성요소들에 바탕을 둬서 시간과 공간에서의 단계별 계획과 높은 효율성을 갖춘 도시와 건축 시스템 모델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특히 거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도시와 주택 거주민들의 거주환경의 질, 삶의 질, 웰빙, 만족감, 심리적 충족감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해석과 이론·방법론적인 적용에 대하여 조사·모델화·이론화한다.



©CIAUP

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한 점검과 분석



전통적 건축 스타일을 활용한 구조

또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가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개발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공간 패턴과 웰빙의 수준을 고려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주 과정의 현상학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디자인, 지속가능한 건축, 도심생태, 환경적 심리와 같은 개념에 따라 주택 구조물을 모델링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환경·지리학적 경관 모델을 수립한다.

도시 및 지역계획

연구 주제는 단계별(주·지방·시·도시 파편) 도시개발 및 환경계획, 도시·환경 영향 조사, 도시 문제 관련 조언 및 감사, 도시 지적도 및 부동산 등록 관련 현대화 과정, 부동산 토지세 감정 평가, 공공주택의 분리 및 공동주택 관련 도시 디자인 등을 다룬다. 특히 도시와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및 민간 이니셔티브들에게 높은 전문성을 갖춘 자문응대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표 연구 사례로는 1999년 바예데멕시코에 위치한 멕시코주의 57개 시에 대한 생태적 관리, 2002년 후이스킬루칸시 도시개발계획, 2005년 틀라폴란 도시개발 대표계획 개정 및 실행과 틀라폴란 국토정리계획, 2006년 틀라폴란 산 안드레스 토틀테펙 도시개발 부분계획 등이 있다.

전통적 건축 절차 및 체계

멕시코 전통 건축 시스템과 절차가 점차 사라져 감에 따라 이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CIAUP는 시대를 거쳐 축적된 유산인 전통 건축양식의 특징과 속성을 되찾고 재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통건축 절차를 기록·분석·연구하며, 기록 과정에서 분석하는 건축 시스템 각각의 구성요소와 모든 절차를 엄격하게 기록한다. 그 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문맥적·문화적·물리적·기술적 조건들을 판독하고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건축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강화하고 취약한 사항을 보완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기존의 가정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멕시코 건축가 아카이빙

2002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20세기 멕시코 건축을 상징하는 24명의 대표 건축가들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이다. 기록물(기술된 기억, 계산수식, 서한, 집필, 보고서, 개인적 물품 등), 설계본(스케치, 설계 원안, 구상안, 실행 종료된 완성본), 모형, 출판물(기사, 서적, 잡지), 사진 등이 수집·축적되었다.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효율

멕시코 정부는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2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멕시코시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20년까지 2000년 기준 30%를 감축하고자 한다. 멕시코시티광역권까지 포함하면 총인구가 2,000만 명을 넘어서고, 멕시코 총 온실가스의 5분의 1이 건물에서 배출된다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그들이 실존하고
있는 공간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도시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사실은 멕시코 정부가 녹색건축과 에너지 효율화 등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이다. CIAUP 또한 건축 설계에서의 재료 및 구조적 시스템, 지속가능한 공법을 활용한 건물설계 등을 통해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도시와 감정: 멕시코의 감정을 연구하다

CIAUP가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시와 도시민들의 감정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도시는 물리적 측면에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CIAUP에서는 도시의 사회개발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감정을 공유하는 공동체(emotional community)’를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도시 공동체에 대한 문화적 연구를 행위자 연결망 이론 및 공간적 전환을 활용한 개념적 도구들을 통해 진행한다. 시공간에 따라 문화적으로 조성된 도시민들의 공간에 대한 애정, 열정, 집합적 감정들에 기반하여 감정 공유 공동체를 일종의 복합적 집합체와 역동적인 존재로 특징짓는다. 이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그들이 실존하고 있는 공간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외부인들에게 멕시코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앓을 것이다. 극심한 부의 불균형, 정치적 불안과 부정부패,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마약 카르텔로 인한 마약전쟁으로 멕시코 치안이 악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멕시코가 갖고 있는 이러한 정치·사회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국민들은 멕시코만이 갖고 있는 고대 문명과 역사, 문화유산, 그리고 이 모든 사람과 문화를 품고 있는 그들의 자연과 대지(大地)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도시와 공간이 가진 형태와 모습은 바뀌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역사와 각 개인의 삶이 겹겹이 쌓이게 된다. 그렇기에 현대사회의 멕시코가 가진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고유성에 기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CIAUP의 노력은 분명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arquitectura.unam.mx/ciaup.html>

INTERVIEW

건축·도시·조경연구센터(CIAUP)
카르멘 발베르데 발베르데
(Carmen Valverde Valverde)
기획조정실장



자료: <https://arquitectura.unam.mx/directorio.html>

Q CIAUP의 주요 연구 방향과 집중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A CIAUP는 건축·도시·조경 분야 연구센터로,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기존에 지어진 문화 전통유산의 복원 연구부터 관광 목적으로 문화 전통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비평적 연구 ▲공공공간, 멕시코 스타일 정원의 발전, 그리고 이 분야들이 소외계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둔 경관 건축 ▲새로운 건축 자재를 포함한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저비용 건축 자재, 생물기후학적 건축. 건축물의 쾌적한 설비 상태와 녹색건축(벽, 지붕), Tensile 건축 공법 ▲다양한 주제별 국토 연구: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에서의 사회-토지 간 변화, 대중적 도시화의 변화, 공공주택의 방치, 힘(권력)에 따른 지리학, 국토계획 등 ▲사회계층 간 차별이 매우 큰 멕시코의 현실을 고려한 연구 ▲Pueblos Magicos*(마법의 마을)라고 불리는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 연구 ▲20세기 멕시코 건축가들의 건축 작품들에 집중한 이론적 연구 등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멕시코가 가진 여러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주제로는 빈곤, 계층차별, 도시 내에서의 분리, 대도시화의 과정, 2017년 지진으로 인해 건축과 사회에 나타난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가 직면해 있으며,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Q 최근 멕시코 또는 멕시코시티의 도시·건축 이슈는 무엇입니까?

A 2017년 멕시코시티 지진 이후 지진 및 건축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저비용 자재들과 같은 구조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지진 발생 당시 이런 자재를 가진 건축물에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 계획의 규정과 지침 및 2017년 멕시코시티 지진의 영향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 멕시코 건축물은 고대 멕시코 문명과 전통을 현대적 스타일과 조화롭게 풀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옥이라는 전통적 건축 유형이 있지만 현대 건축에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한데요. CIAUP에는 '전통건축 방법 및 체계' 연구실이 따로 있고,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해 보입니다. CIAUP가 주안점을 두는 것, 노하우, 문제점, 비전 등을 소개해 주십시오.

A 멕시코에서는 전통 문화를 현대에 구현하는 일이 어느 정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축물 형태를 단독주택에서 '멕시코 스타일'로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건축물이 존재하며, 특히 20세기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문화유산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 다시 매입되고 있기도 합니다.

* Pueblos Magicos 프로그램은 멕시코 관광청에 의해 2001년에 시작된 사업이다. 멕시코 전역의 특별한 자연경관, 문화유산, 전통, 민속, 역사적 적합성, 음식, 공예품 등을 가진 지역을 선별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관광 루트에서 벗어나 멕시코만의 경관과 전통을 부각시킨 프로그램이다. 2012년까지 83개 마을이 선정되었다.